

이지원 CP “정글의 법칙” 10년 장수, 긴말할 것 없이 김병만 덕분

코로나19 상황 속 국내 시즌 마무리

‘와일드코리아’ 등 9개월간 11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김병만씨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국내 시즌을 마무리하고 재정비에 들어간다. 29일 방송되는 ‘정글의 법칙 in 펜트아일랜드:육망의 섬’ 두 번째 편을 끝으로 국내 시즌의 막을 내린다.

‘정글의 법칙’ 이지원 CP는 최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시즌도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정글의 법칙’ 브랜드에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정글의 법칙’은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전 세계 정글 곳곳을 누비며 자연 그대로 생존하는 모습을 담아내며 대자연의 감동과 웃음을 선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해외 촬영이 어려워졌고, 국내로 눈을 돌렸다. 지난해 8월말 첫선을 보인 ‘정글의 법칙 in 와일드코리아’를 시작으로 ‘정글의 법칙 in 펜트아일랜드:육망의섬’까지 국내 시즌 총 11편이 9개월여간 방송됐다.

이 CP는 “비단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 모두가 똑같은 것”이라며 “국내 시즌을 연출한 김준수·김진호·박용우 PD가 고생하며 열심히 잘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국내 시즌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매화 다양

한 콘셉트를 선보였다. 재난 상황을 모티브로 한 ‘와일드코리아’를 비롯해 자연의 식재료 요리를 소개하는 ‘족장과 헬머니’, ‘헌터와 셰프’ 등 여러 콘셉트로 꾸며졌다.

이 CP는 “본래 해외라면 일주일 정도 생활하며 내밀한 생존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내다 보니 1박2일 정도 촬영했고 색다른 자연의 모습이 많진 않아 시청자들이 심심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의 재미와 의미를 주기 위해 콘셉트를 다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처음 ‘와일드코리아’는 재난 생존으로 당시 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 정보도 전달했죠. ‘제로 포인트’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취지로 해양 쓰레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마약하지만 청소도 했어요. 울릉도, 독도 편은 울릉도의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과 식생부터 독도의 수중 생태까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죠.”

또 그는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숨겨진 멋진 자연환경들이 있다”며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의 멋진 자연을 국내 시청자들과 공유했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오래됐다 보니 해외 시청자들도 꽤 있다. 지금은 해외관광객들이 못 들어오니까 한국의 자연을 소개하는 기회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내 시즌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청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360도 VR 콘텐츠를 시도했다. 독도를 360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고, 제주 편도 만장굴을 들여다보고 바닷속도 360도로 찍어봤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죠. 방송이 나갈 때 QR코드를 상단에 넣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정글의 법칙’ 유튜브 계정으로 실시간 연동해서 독도와 제주를 360도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었죠. 방송과 별개의 부가 콘텐츠로 제작했는데, 조회 수도 높았고 시청자들도 흥미롭게 여기면서 반응이 좋았죠.”

국내 시즌에서도 개그맨,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 등 많은 스타가 ‘정글의 법칙’을 찾았다.

이 CP는 그중 고정 멤버처럼 출연해준 가수 박군과 개그맨 최성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군, 최성민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김병만 족장도 고마워하며 좋아했어요. 박군씨는 워낙 성실하고 생존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줬죠. 최성민씨는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본인을 ‘프로 받침대’라고 했는데, 다른 출연자들과 멤버십을 잘 만들고 이끌어 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지난 2011년 10월 첫 방송된 ‘정글의 법칙’은 올해 10주년을 맞으며 S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당시 ‘정글의 법칙’ PD로 처음 제작했던 이 CP는 “시청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었으면 여

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10년 전에는 이렇게 10년을 한다는 생각은 못 하고 만들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족장 김병만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그는 “긴말할 것 없이 10년을 할 수 있었던 건 김병만씨 덕분”이라며 “초창기부터 어려움도 함께 견뎌온 전우애가 있다”고 말했다.

“늘 솔선수범하고 살신성인으로 힘든 일, 굵은 일을 도맡아 하죠. 김병만씨도 사람인지라 10년 전과 지금의 몸 상태가 똑같지 않을 텐데 늘 한결같아요. 방송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촬영 전에 항상 현장에 먼저 와서 안전을 챙기고 준비를 같이해요. 본인도 연예인인데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촬영을 마치고 현장 환경을 항상 회복하는 원칙이 있는데, 늘 제작진과 쓰레기를 같이 치우고 정리하죠.”

‘정글의 법칙’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재정비 후 해외 시즌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앞서 SBS는 ‘정글의 법칙’이 추구하는 대자연 속 생명존중의 활약을 충분히 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국내 시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보다 어떤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해요. 저희가 초창기부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많이 담았죠. 기본적인 콘셉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면서 이 CP는 “프로그램을 떠나 온 국민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좀 더 성숙한, 프로그램 본연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잘 돌아오겠다”고 다음을 기약했다.



아이콘, 지루할 틈 없는 신곡 ‘열중쉬어’

‘위너’ 송민호 작사·작곡

그룹 ‘아이콘(ikON)’의 신곡 ‘열중쉬어 (At ease)’가 공개됐다.

아이콘은 28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엠넷 ‘킹덤: 레전더리 워’(킹덤) 파이널 경연을 위해 준비한 신곡 ‘열중쉬어’를 발매했다.

‘열중쉬어’는 지루한 일상과 삶이 주는 부담감을 지쳐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자유롭게 쉬었으면 하는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풀어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다.

강렬한 드롭과 반복되는 훅이 인상적이다.

아웃트로의 멜로디는 후반부로 갈수록 마치 다른 곡처럼 느껴지게 한다. 지루할 틈 없이 신선한 사운드가 주는 이룬다.

아이콘 특유의 엔도르핀 에너지는 숫구치는 것은 물론 자유롭고 와일드한 매력에 무대 위에서 100% 발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은 그간 순위와 상관 없이 무대를 즐겨왔다. 리듬 타 (RHYTHM TA)’를 시작으로 ‘사랑을 했다’와 ‘죽겠다’의 매시업, 블랙핑크 리사와 콜라버 곡 ‘CLASSY SAVAGE’ 등을 선보였다.

이제 남은 무대는 단 하나, ‘킹덤’ 파이널 경연이다. 아이콘의 ‘열중쉬어’ 무대는 오는 6월3일 방송되는 ‘킹덤’에서 최초 공개된다.

나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주연

배우 나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의 주연으로 발탁됐다.

28일 소속사 플래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의 ‘허보라’ 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배우로서 기존에 보여준 것과 또 다른 연기색을 펼칠 예정이다.

‘글리치’는 UFO 커뮤니티 회원들이 정체불명의 불빛과 함께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을 좇으며 미스터리한 비밀의 실체에 다가서는 이야기를 그렸다.

나나가 맡은 ‘허보라’는 홍지효와 함께 미스터리 비밀의 실체에 다가가는 인물이다.

나나는 지난 2016년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로펌 조사원 ‘김단’ 역으로 국내 드라마에 데뷔했다.

이후 장르를 불문한 연기력으로 영화 ‘꾼’부터 지난 13일 종영한 MBC 드라마 ‘오! 주인님’까지 사기꾼, 형사, 검사, 구의원, 토크배우에 이



르는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였다.

‘숙취운전 사고’ 배우 박시연, 항소 포기…벌금형 확정

1심 법원, 벌금 1200만원 선고…“죄질 불량”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대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벌금 1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 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지난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고, 박씨는 전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재판 1심 판결 불복 시에는 7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박씨의 항소기간은 전날까지였다.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

준인 0.099%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리는 당시 임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깊이 누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씨도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도 게을리했다고 보고 지난 3월 박씨를 기소했다.

박 판사는 선고 당시 “박씨가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박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중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YG “장기용, 손연재와 모르는 사이”…열애설 부인

“드라마 촬영으로 부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

배우 장기용과 전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가 갑작스레 불거진 열애설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며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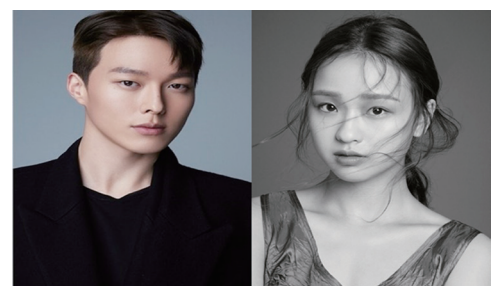
장기용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장기용 배우는 손연재 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열애설이 일게 된 부산 해변가 사진에 대해서는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촬영으로 부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해

명했다.

손연재 측 관계자 역시 “손연재가 여행 간 시기와 해당 배우분의 촬영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 같다.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아무런 접점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올린 부산 사진을 보고 열애 중인 것이 아니냐 추측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장기용이 손연재를 이상형으로 언급한 일을 증거로 들



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열애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임영웅 측 “45억짜리 마포구 건물주 보도는 오보…소속사가 취득”

트로트 가수 임영웅 측이 서울 마포구 인근의 6층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9일 임영웅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를 통해 “임영웅 건물 매입 관련 내용은 오보”라며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정되지 않고 있고 이를 다른 여러 매체가 인용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해명

했다.

이어 “소속사인 물고기뮤직에서 해당 건물을 취득했고, 현 임차인들의 임대 기간이 완료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사육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임영웅이 건물을 구입했다, 또는 임영웅이 1인 법인 명의로 구입했다는 표현은 팬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물고기뮤직은 “임영웅은 소속 아티스트이며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물고기뮤직은 2015년부터 설립돼 운영돼 온 독립 법인”이라며 “1인 기획사도 잘못된 표현이다. 사실과 다른 헤드라인으로 임영웅에게 피해가 가는 점 매우 유감스럽고 이에 팬들에게 마음 아픈 점 또한 죄송하다. 잘못된 기사가 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